

【도난】 서울 개인소장 비지정 **고사인물도(1점)**도난 알림

1. 사건개요

종별	명칭	수량	규격	시대	도난장소	도난(유실) 일자	소유자 (관리자)	연락처 (국가유산 사법단속팀)	비고
비지정	고사인물도 신윤복 그림	1점	119.5*43cm	조선 1811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길 23 7층 (사)후암미래연구소	2019.12. ~2020.1. 추정	개인	주간(사법단속팀) : 080-290-8000 야간(당직) : 042-481-4651	

- 2019.12.~2020.1. 도난추정
- 2020년 1월 사무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장품 고사인물도가 부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 특이사항 족자형태이며 그림을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

2. 도난(유실) 유물 사진(붙임)



고사인물도



국유산청 제보: 국가유산청 사법단속팀(080-290-8000) · 경찰서(112) 및 시군구 문화유산담당

(붙임)

고사인물도

(신윤복 그림 / 연도 1811년 / 규격 119.5*43cm)



도난당한 고사인물도는 조선 후기 화가인 혜원 신윤복이 1811년에 그린 그림으로 2008년에 개인이 일본의 수집가에게 구입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197년 만에 돌아왔다.

고사인물도 작품은 제갈량이 남만왕 맹획을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사로잡아 심복시켰다는 삼국지연의 칠종칠금 고사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의 우측 상단 화재 아래에는 조선국의 혜원이 그리다 목서가 있어 당시 그린 화가가 신윤복임을 밝히고 있다.

1811년 마지막 조선통신사 파견 때에 사자관으로 수행한 신윤복의 외가 피종정이 신윤복에게 부탁하여 그려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법(도난·도굴)제보: 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080-290-8000) · 경찰서(112) 및 시군구 문화유산담당